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세계랭킹 10위권 □ 메이저대회 우승

# 절반 이룬 '경주의 꿈'

PGA 8년만에 세계 랭킹 8위

아시아 선수론 최초로 톱10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할 때 세웠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세계랭킹 10위 이내 진입'을 마침내 달성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주간 세계랭킹 8위에 올랐다.

지난 주 인덱스 챔피언십에서 불참하고도 세계랭킹 11위로 올라 섰던 최경주는 타이거 우즈(미국)만 빼졌을 뿐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가 대부분 출전한 바클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PGA 상급랭킹은 3위에 올랐고 세계랭킹은 3계단 상승했다.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톱10'에 입성한 것은 최경주가 처음이며 아시아 선수로도 최하다.

미국 진출 때 '메이저대회 우승'과 '세계랭킹 10위 이내 진입' 등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PGA 정식 데뷔 8년만에 한가지를 성사시킨 것이다.

최경주는 PGA투어 퀄리파잉(Q) 스톱을 준비할 당시인 1999년 12월에는 세계랭킹 129위에 불과했고, 투어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이듬해 3월에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못해 132위에 그쳤다.

그러나 최경주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랭킹을 끌어올렸다.

컴팩클래스에서 감격적인 데뷔 첫 승을 챙긴 5월엔 세계랭킹이 190위에서 69위로 수직상승하며 사상 첫 100위내에 진입했다. 또 템파베이클래스에서 2승을 달성한 같은해 9월에는 57위까지 점프했다.

최경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뤄졌다. 이제 원이 없다. 메이저대회에서 아시아 최초의 우승자만 된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즈가 변함없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짐 퓨릭(미국),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남아공)가 2~4위를 유지한 가운데 바클레이스에서 7년만의 우승을 맞은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지난 주 14위에서 5위로 경종 뛰었다.

5위였던 아담 스콧(호주)이 6위로 밀렸고 브리티시오픈 챔피언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가 7위에 올랐다.

작년 US오픈을 제패했던 조프 오길비(호주)가 9위를 지켰고 바클레이스에서 컷오프를 당한 비제이 싱(피지)은 7위에서 10위로 곤두박질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 31일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 출전

## “이젠 우즈도 두렵지 않다”

우승 상금 1천만 달러를 향하여

포인트 랭킹 2위...컨디션 '최상'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한국산 탱크' 최경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맞대결에 나선다.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1위에게 1천만달러의 거금을 안겨주는 플레이오프에서 첫 대회를 준우승으로 장식하며 세계랭킹을 8위로 끌어 올린 최경주는 31일(한국시간) 오후 개막하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출전해 플레이오프 첫 우승에 도전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천207야드)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은 첫 대회 바클레이스가 144명이 출전한 것과 달리 120명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출전 선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쟁이 더 심해졌다는 뜻. 더구나 바클레이스와 본질적으로 대회가 달랐던 점은 바로 '황제' 우즈가 출전한다는 사실이다.

"괴곤하다"는 이유로 바클레이스를 건너 뛴 우즈는 정규시즌에서 벌여놓은 기본 점수가 워낙 많아 한 대회를 거르고도 포인트 순위 4위에 올라 있다.

"접어주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겠다"는 것과 다른 우즈의 오만함에 일격을 가할 후보에 포인트 순위 2위인 최경주의 이름도 당당하게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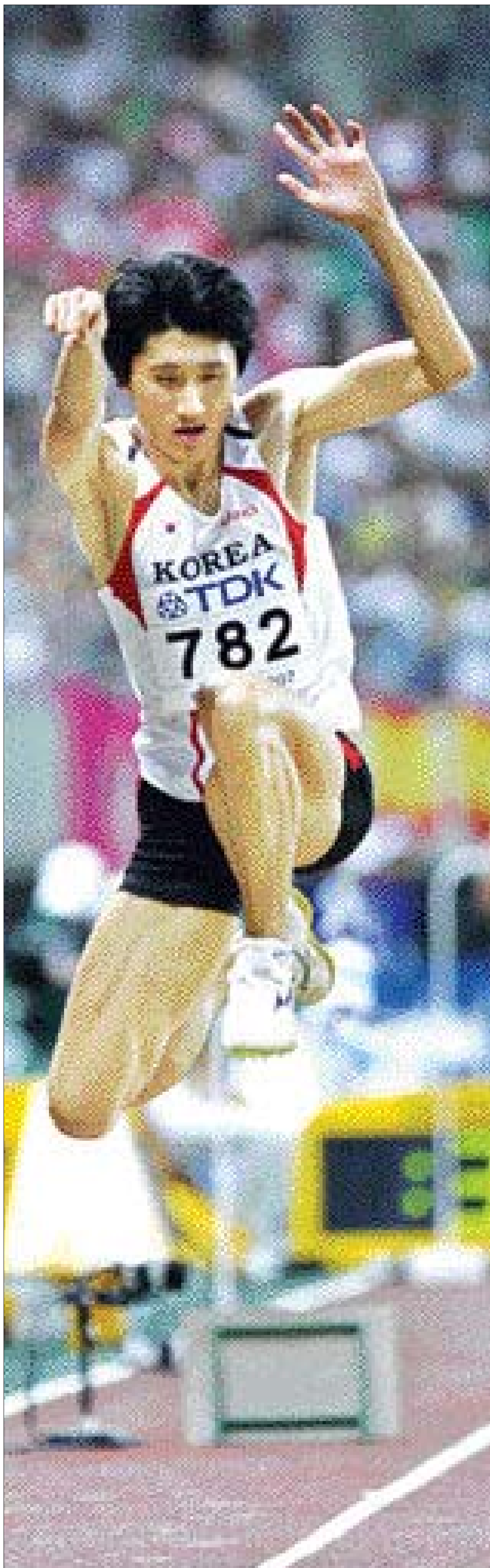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릭(미국),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남아공)가 2~4위를 유지한 가운데 바클레이스에서 7년만의 우승을 맞은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지난 주 14위에서 5위로 경종 뛰었다.

5위였던 아담 스콧(호주)이 6위로 밀렸고 브리티시오픈 챔피언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가 7위에 올랐다.

작년 US오픈을 제패했던 조프 오길비(호주)가 9위를 지켰고 바클레이스에서 컷오프를 당한 비제이 싱(피지)은 7위에서 10위로 곤두박질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 오사카 나기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16m71cm를 뛰어 9위를 기록한 한국의 김덕현(조선대)이 몸을 날리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선대 김덕현 톱 10

세계육상 세단뛰기 9위

캠벨, 여자 100m 우승

자메이카의 베로니카 캠벨이 박빙의 레이스 끝에 '지구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됐다.

캠벨은 지난 27일 밤 일본 오사카 나기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결승에서 11초01에 결승선을 끊어 로린 윌리엄스(미국·11초01)를 아슬아슬하게 제치고 1위로 끝냈다. 승부는 정확히 1천분의 3초 차이로 갈렸다.

캠벨은 스타트 반응 속도 0.167초로 윌리엄스(0.145초)보다 늦었고 후반부까지도 간발의 차로 뒤졌지만 막판 극적인 스피드로 역전 드라마를 펼쳤다.

'한국 도약의 에이스' 김덕현(22·조선대)은 '월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김덕현은 대회 남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2, 3차 시기에서 똑같이 16m71을 뛰어 결승에 오른 12명 중 9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위 안에 든 것은 트랙, 필드, 도로 레이스를 통틀어 1999년 스페인 세비아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6위를 차지한 이진택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김덕현은 지난 25일 이 종목 예선에서 16m78을 기록해 역시 8년 만에 처음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탈꼴찌 발판 안방서 마련”

광주, 오늘 제주와 맞대결

“안방서 탈꼴찌 발판 마련하겠다.”

골프탈출이 급선무인 광주 상무가 2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19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28일 현재 2승 5무 11패(승점 11점)로 최하위인 14위에 머물러 있다. 13위인 부산과는 승점 3점이 차이이고, 골 득실도 -11개차다.

따라서 광주는 이번 제주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만 최하위의 수모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광주는 특히 앞으로 인천, 수원, 울산, 포항 등 상위권 팀과의 경기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하위그룹인 제주(11위)와의 일전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광주는 이번 제주전에선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한태유 대신 성종현을 오른쪽 수비로 배치하고, 올림픽 대표 김승용과 함께 남궁도를 후반 조커로 투입,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선발 공격진은 이길훈, 이진호, 여승원 등 '영건'들을 전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제주는 지난 주말 인천과의 대결에서 강민혁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겪으면서도 끈끈한 조직력으로 1-1 무승부를 이끌어냈고,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에 올라탄 상태다. 여기에 최근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최현연의 공격력도 위협적이다. 이밖에 시즌내내 잘 나가다 최근 3경기서 1무2패로 부진의 늪에 빠진 성남 일화는 홈 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으로 경남FC를 불러들인다.

경남과는 역대 네 차례 맞붙어 전승을 거뒀지만 경남이 최근 2연승의 상승세라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성남은 이번 경남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올림픽축구 대표팀

내달 3일 카타르와 평가전

다음달 바레인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 2차전을 치르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9월3일 카타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올림픽대표팀이 카타르와 3일 오후 11시20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알 사함 막툼 빈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평가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 오전 1시 바레인과 올림픽 최종예선 원정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은 31일 정오 소집해 이날 밤 출국, UAE 두바이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다음달 6일 바레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우승팀 카타르는 사우디 아라비아, 일본, 베트남과 함께 최종예선 C조에 속했다.